

지역 소식통

정읍시, '다문화가정 고향 나들이' 지원 추진

정읍시가 지역 내 다문화가정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나섰다.

시는 코로나19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오랫동안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고향 나들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고향 나들이 지원사업'은 한국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1억2천만원을 들여 결혼이민자 가정에 왕복 항공료와 여행자보험료, 교통비, 공항 왕복 교통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 대상은 총 24가정으로 4인 가정 기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정읍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최근 2년간 고향 방문 경험이 없는 결혼이민자 가정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가정형편, 모국방문 횟수, 거주(결혼)기간, 자녀 수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청소년 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

정읍시가 자녀 양육과 화합·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청소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은 만 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 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저소득·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은 많았지만, 이번처럼 연령이 어린 청소년 부모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6월 1일 기준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이면서 혼인 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다.

/정읍=김대환기자

# “군민과 함께여서 행복했던 시간”

유기상 고창군수 퇴임식, 500여명의 공직자들과 유관기관·단체장들 참석

민선 7기 고창군정을 이끌어온 유기상 고창군수가 퇴임했다.

지난 30일 오전 10시 고창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유기상 군수의 퇴임식이 열렸다. 이날 500여 명의 공직자들과 유관기관 및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퇴임식에선 고창군 공직자와 고창군 의회를 비롯해 20여 개 기관 및 단체에서 유 군수에게 공로패 및 감사패를 수여했다.

유기상 군수는 “2018년 민선 7기 취임 당시 선사시대부터 문명이 꽃피던 한반도의 첫 수도의 자존심을 살리고, 천하제일강산 고창의 명성을 되살리



겠다고 다짐했다”며 “지난 4년은 군민과 함께 혁신의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고창군의 위상을 보여준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기후위기,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 속에서 풀어야 할 숙제 또한 산적해 있다”며 “민선 8기에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로 고창군민과 공직자들이 지혜를 모아 고창군의 자랑스런 역사를 계승하고 창조해 나가도록 울려퍼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저의 영원한 고향인 고창의 빛나는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한다”면서 “그동안 군민들로부터 받았던 넘치는 사랑을 잊지 않고 고창군의 발전을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진서면 무허리 앞 화단은 잡초로 인하여 지난 몇 년간 화단 조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꽃백일홍을 선택, 씨앗 밭이에 정성을 쏟고, 집중 관리하여 화단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 “몸과 마음 힐링하는 시간을”

부안 진서면, 꽃백일홍 물결 인생샷 포토존 설치

진서면 무허리 앞 화단은 잡초로 인하여 지난 몇 년간 화단 조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꽃백일홍을 선택, 씨앗 밭이에 정성을 쏟고, 집중 관리하여 화단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현재 백일홍이 만개해 형형색색 장관을 이루고 있다. 또한 꽃밭에 포토존을 설치해 새로운 힐링의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잘 가꾸진 꽃 한 가운데 설치된 포토존은 인생샷 찍기 제격이다.

백일홍의 꽃말은 “인연”으로, 슬픈 심화를 갖고 있다.

제물로 바쳐지기로 한 처녀를 사랑해 그녀를 살리기 위해 이무기를 죽이기로 결심한 사내가 성공의 표시로 흰색 기, 실패할 경우 붉은 깃발을 울리겠다고 하고 떠나고 일주일후 사내가 돌아오는 때는 붉은 색 기가 매달려

있었다.

처녀는 사내의 죽은 줄 알고 삼심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나 그 깃발은 이 무기를 죽인 피가 묻은 것이었고 사내는 살아 돌아왔다.

처녀의 죽음을 들은 사내 역시 바다로 몸을 던지고 두 사람의 시신을 묻은 곳에서 피어난 꽃이 백일홍이라고 한다. 백일홍은 오랫동안 사들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포토존 설치는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예정이다.

조진곤 진서면장은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백일홍 물결을 구경하고, 진서면에서 몸과 마음의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19로 위축되었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 민선 8기 이학수 정읍시장 공약 80개 확정

인수위, 국별·부서별 절차 거친 뒤 10월경 본격 추진

정읍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김철수)가 지난 6월 29일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민선 8기 공약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정읍시장직 인수위가 발표한 공약은 8개 분야 80개 사업(신규 48, 계속 32)으로, 5대 시정방침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

분야별로 보면 일자리·경제 11개 사업에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 1,558억여 원이 소요되고, 농업·농촌 분야 10개 사업에 770억원, 보육·교육 9개 사업에 418억원, 문화·관광·체육에 13개사업 3,017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10개 보건·복지 사업에 532억원, 도시·교통·환경의 14개사업에서 1,971억원, 6개 청년·소상공인·자영업 분야 사업에 488억원 그리고 시



정읍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김철수)가 지난 6월 29일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민선 8기 공약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민소통과 행정 분야에서 7개 사업에 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들 80개 공약사업을 △중요로운 민생경제 등 5대 시정방침별

/정읍=김대환기자

## 고창군, 원숭이두창 24시간 비상방역체계 돌입

고창군이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으로 감염병 위기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됨에 따라 비상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24시간 비상방역체계에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건소장을 반장으로 총 5개 팀 20명으로 구성된 방역대책반은 관내 30여 의료기관에 원숭이두창 의료진 안내서를 배부했다. 또 의심 환자 내원 시 주의사항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환자(의심) 모니터링, 역학조사, 병상 배정, 검사·치료 협업체계 유지, 긴급 연락체계 구축 등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을 강화했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시 발열, 인후통, 무력감, 전신증상 및

피부병변 등 원숭이두창이 의심되는 임상증상 및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입국 후 3주간의 잠복기간 내 의심 증상 발생 시 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원숭이두창에 감염되면 5~21일 잠복기를 거쳐 나타내며 38°C 이상의 발열, 두통, 근육통, 근무력증, 오한 등 증상이 발생하고 동그런 붉은 반점 같은 발진이 나타나기 시작해 수포·농포·가피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고창군민 중 증상 발현 후 2일 이내 △발생지역 방문 △확진 또는 의심 환자와 접촉 △아프리카 고유종인 야생 및 반려동물 접촉력이 있는 경우 고창군보건소에 문의하고 안내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 심덕섭 고창군수직인수위, 활동 마무리

민선8기 심덕섭 고창군수직 인수위원회(위원장 김인호)가 열정 넘치는 활동을 마치고 지난 30일 마무리했다.

실무행으로 꾸러진 인수위는 지난 7일 고창군 예산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8일부터 사흘간 부서별·읍면별 핵심사업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13일부터 민선8기 공약사업 검토를 거쳐 총 250건의 공약 중 '군민재난기 본소득' 등 105건의 공약을 선별해 당선인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또 인수위는 각계각층과의 실질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16일부터 이틀간 고창판내 70여개 민간사회단체를 초청해 '관내 사회단체 대표와 함께하는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대군민 공모를 통해 군정비전(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넘치는 고창)과 6대 국정목표를 확정하기도 했다.

특히 인수위는 지역최대 현안사업인 고창일반산업단지 내 동우컴퓨터이클립주문제관련, 여러 관계자를 만나고, IT팀을 운영하는 등 빠른 결론을 위해 애썼다.



하지만 환경보전방안 보완요청에 대한 진행이 원활하지 않고 제4차 산업단지변경계획이 지지부진한 점, 산단 입주계약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당선인 취임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